



2020년 12월 13일(제1012호) 대림 제3주일(자신 주일)

군종주보

발행 : 군종교구 홍보국 | 전화 : 02)749-1921, 02)900-7756 | FAX : 02)790-5768 | http://www.gunjong.or.kr | email : hongbo@gunjong.or.kr

말씀

“우리 용사들도 봉헌금을 냅니다.”

‘여러분, 이제는 못 먹던 시절이 아니지요.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적은 월급이지만, 여러분이 받은 월급으로 적금도 넣을 수 있고, 외출과 휴가, 일과 후에 PX에서 먹거리나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돈이지요. 분명 말씀드리면, 여러분의 봉헌이 본당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외출할 때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라도, PX 냉동식품값의 일부라도, 또는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으니, 우리 함께 내 것을 봉헌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봉헌을 해보면 어떨까요?’

몇 달 전부터 백골성당 용사들이 봉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 본당신부로서 봉헌금을 내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교회에 봉헌하는 자세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고, 또 내 것을 베푸는 선행을 할 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용사들도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. 또 액수를 떠나 용사들이 봉헌금을 준비하면서 주일미사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했는데, 봉헌금을 내는 용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. 참 기특했습니다. 단순히 간식 먹으려고 본당에 오는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을 내어가며 기도드리려고 왔고, 또 나의 작은 것을 베풀어보려는 용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참 행복

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

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자신 주일입니다.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고기 반찬을 자주, 많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 것을 채우는 것엔 너그러우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자선을 베풀 땀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‘베풀에 너그러운 사람만이 주님께서 내 베품의 빈자리를 더 많이 채워주신다.’는 사실입니다.

돈이 많기 때문에 베품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. 여유가 많아서 내 시간을 봉헌하는 것도 아닙니다. 내 것엔 언제나 주님의 몫이 있습니다. 흠으로 돌아가는 그 날, 당당히 이 세상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던 하느님께 자신 있게 ‘주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했습니다.’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의 베품이 이 세상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당당히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



우형원(다미요) 신부
백골(3SMT) 성당 주임

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

이사 61,1-27.10-11
◎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.
1테살 5,16-24
◎ 알렐루야.
○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

복 음 영 성 제 송

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. ◎
요한 1,6-8.19-28
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. 힘을 내어라, 두려워하지 마라.
보라,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.

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

세 번째 시한

(※ 두 번째 시한, 즉 주산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올린 시한은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.
주산에는 1842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류했다.)

예수 마리아 요셉

(상해에서, 1842년 9월)¹⁾

마카오의 리브와 신부님께

지극히 공경하옵 신부님

우리가 아직 주산(舟山)²⁾에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서한³⁾을 드렸습니다. 이제 다시 짧은 서한을 드립니다.

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발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(揚子江, 지금의 長江)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. 세실(Cecille)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곤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여 출발하였고,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에 있는 어떤 외교인⁴⁾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.

사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. 세실 함장은 아직도 자기는 조선으로 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디다만, 만일 조선으로 가는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 닥칠 경우에는 조선에 갈 항로를 바꾸어 마닐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.

그렇게 애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산둥(山東)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하여 우리는 브뤼니에르(de la Bruniere)⁵⁾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에게로 파견하였던 범(范) 요한⁶⁾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범 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, 브뤼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갔는데, 우리는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. <다음 주에 계속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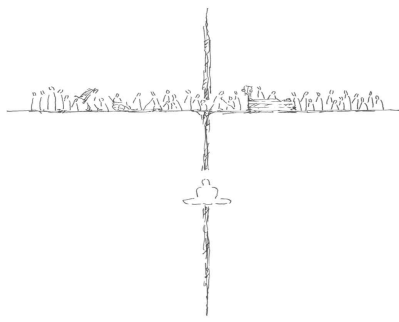
1) 이 세 번째 서한에는 본래 “발신지”가 적혀 있지 않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, “상해”에서 보낸 것이 분명하다.
2) 주산 : 중국 절강성(浙江省) 항주(杭州) 앞바다에 있는 주산도(舟山島)를 말함.
3) 이 서한이 바로 두 번째 서한이었는데, 그 후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.
4) 황세흥(黃世興)을 말함(다음의 네 번째 서한 참조).
5) 브뤼니에르 :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.
6) 범 요한 : 중국인 범 요한은 1836년에 조선과 류큐의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앵베르 주교가 류큐에 파견하려 했던 신자이다.

『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』 발췌,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, 한국교회사연구소, 1996

복 음 묵 상

- 배영길(비드로) 신부 / 예수회

이 세상엔



이 세상엔
우리가
기도해 줘야 할 이들이
참 많습니다.

이 세상엔
우리가 함께
울어 줘야 할 이들이
참 많습니다.

이 세상엔
우리의 손길이
필요한 이들이
참 많습니다.

이 세상에
그들과 내가
함께 살아갑니다.

상화이야기 **성요한 제단화 중 일부, 침수형을 당하는 세례자 요한**



한스 멤링, 1479년 작
176 × 78.9cm
멤링 미술관 / 벨기에 브뤼헤

본 그림은 세 폭 제단화의 일부인 왼쪽 제단화로 세례자 요한의 침수형 장면을 그리고 있다. 하단에는 목이 잘린 세례자 요한의 시체(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, 두 손이 거의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)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의 풀을 적시고 있다.

사형집행자는 오른쪽의 살로메가 들고 있는 접시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데, 13세기에서 16세기에는 접시 위에 놓여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만을 조각한 작품 및 침수형 장면이 크게 유행하였다. 심지어 잘린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까지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.

그 당시에는 이것이 성반에 놓여진 성체와 비슷하게 생각되어, 예수님의 수난과 성체성사를 묵상하는 주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.

뒤쪽의 건물에는 연회 장면이, 먼 후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 및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이 ‘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’이라 하시며 비둘기를 보내는 장면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.

김은혜(앨리스벳)

교 구 소 식

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- 대림 제3주일: 상기브리엘 이종업 신부

◆ **교구장 동정**

- 주교 영성 모임
 때·곳: 12월 14일(월)~15일(화),
 전의 정하상 교육회관

◆ **대림 제3주일 특강 인니**

강사: 김준래 신부(해군본부)
 주제: 고해성사
 게시: 12월 11일(금) 17:00
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
 부탁드립니다.

